

강진 ‘생활인구 증대’ 반값여행이 견인

지난해 생산유발효과 150억

올해 생활인구 증대 원년 선포

혜택 늘리고 이용 편의성 높여

강진군이 반값 여행 혜택을 대폭 확대해 지방소멸, 인구감소, 지역경제 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2025년을 ‘생활인구 증대 원년의 해’로 선포한 강진군은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을 중심으로 생활인구+정주인구 정책을 탄탄하게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은 전국 최초 여행비 반값 지원책으로 강진을 여행하는 관광객에 강진에서 소비하는 비용 절반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군은 올해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 정책을 강진에서 소비한 비용 절반을 개인은 최대 10만원까

지,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 개인 참여자 혜택을 늘렸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 금액과 지원신청 횟수를 늘리고, 홈페이지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정산 횟수도 1일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또한 기존 연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을 연 4회로 두 배 늘려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방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당일 정산을 원칙으로 오전 11시와 오후 5시 두 차례 정산하던 방식에 오후 1시를 추가해 하루 세 차례 정산한다.

홈페이지도 개편작업을 거쳐 신청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시킨다. 정산시 필요했던 관광지 사진과 영수증 중 영수증만 첨부하면 정산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신청할 때마다 입력해야 했던 개인정보도 회원제 운영으로 바꿔 회원 가입 후 회원 번호만 입력하면 추가 입력 사항이 필요 없도록 했다. 개편 홈페이지는 13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관광지 관광객이 지난 11월 24일 기준 265만명으로 전년 대비 25% (50만 명 이상) 증가했다. 방문 인구가 하루에 2만 여 명으로, 강진군 인구 3만3000명 대비 약 61%가 넘는 규모다. 타 지자체보다 통근·통학에 취약한 강진군이 관광정책과 축제를 포함한 생활·정주인구 정책으로 큰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반값여행 참여자가 강진에서 소비한 금액과 돌려받은 반값 정산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11월 말 기준, 58억7000만원으로, 1차산업부터 3차산업까지 1812개의 다양한 업체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반값여행 정책은 강진군을 위한 우리의 소중한 가족, 이웃을 위한 그리고 공익을 위한 확실하며 가치있는 투자”라며 “2025년 생활인구 증대 원년의 해는 군민이 더욱 행복하고 잘사는 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담양군은 재택의료팀을 꾸려 장기요양 수급자 중 거동불편 어르신을 찾아가 방문·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거동불편 어르신 방문 간호·돌봄 서비스

재택의료센터 공모사업 선정

담양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재택의료팀을 꾸려 장기요양 수급자 중 거동불편 어르신을 찾아가 방문·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은 보건소 1팀과 보건지소 11팀으로 운영된다.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을 통한 요양·돌봄 수요 발굴 및 연계 등을 제

공한다. 특히 직접 찾아가 진료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거주 환경, 정서적 안정, 복지 연계 등을 제공해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재택의료센터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향촌복지의 핵심”이라며 “찾아가는 주민건강 지킴이 사업, 우리마을 주치의 사업과 함께 운영에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득량만 장흥갯벌 위의 어머니들 삶

공무원 사진작가 김금옥씨 사진집

5년 발로 찍은 생생한 126장 담아

갯벌을 일터로 살아가는 어머니들의 삶을 5년간 사진으로 찍어온 공무원이 사진집을 출간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장흥군 용산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진작가 김금옥(57·행정6급 팀장) 씨다.

김 씨가 출간한 사진집 ‘어머니 품 장흥갯벌’은 1편(갯벌), 2편(바다), 3편(갯사람)으로 편성했으며 총 126장이 수록돼 있다. <사진>

장흥 득량만 연안 안양, 용산, 관산, 대덕, 회진 5개 읍면 갯벌에서 서식하는 낙지, 바지락, 굴(석화), 김, 미역, 매생이,감태, 다시마 등을 사계절 작업장면을 생동감 있게 찍은 다큐멘터리 사진물이다.

이번 사진집은 김 씨가 갯벌과 어머니들의 생생한 작업 모습을 담기 위해 갯벌에서 넘어지고 새벽 배를 타고 때로는 드론을 띄워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앵글들까지 포착한 열정이 있었기에 살아 숨 쉬는 득량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게 지인들의 전언이다.

사진집을 보면 시원 바다에서 계절에 상관없



이 물때에 맞춰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갯벌에 나서는 어머니들의 삶은 낙지 한 마리 잡아 들어 올리는 뿌듯한 웃음, 굵은 허리리 굴(석화) 가득 담긴 망태를 매달고 언덕을 오르는 뒷모습을 진득하게 묘사하고 있다.

김 씨는 “앞으로 장흥 득량만 갯벌을 넘어 전남

연안 갯벌 곳곳을 사진 기록 보존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씨는 광주시립미술관이 주최한 초대전에 ‘무등산에서 영산강으로’와 ‘화순8경’을 출품하는 등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장흥=김옥희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함평군이 올해부터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에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산부인과 진료비, 산후우울증 상담비, 산후조리

원 이용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산후 마사지 비용 등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다양한 항목에 폭넓게 지원된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함평군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을 방문해 관련 서비스 이용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임산부 및 출산가정 무료 외식 쿠폰 지원 ▲임산부 보호 안전벨트 및 임신 축하선물 ▲출산 축하선물 ‘행복함’ ▲출생아 양육지원금(300만원~1000만원)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지역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220억 늘려 민생경제 긴급 수혈

개인 구매 100만원... 15% 할인

나주시가 민생경제 긴급 수혈을 위해 내년 나주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발행을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원까지 늘린다.

이는 2024년 한 해 발행 규모인 약 780억원에서 220억원 증가한 수치다.

나주시는 지역경제 조기 부양을 위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최대 소비 대목인 설 명절에 맞춰 내년 1분기에 지역화폐 350억원을 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또 1인당 구매 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1월 한 달간 나주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바일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카드 충전 금액의 10% 선할인에 더해 결제 금액의 5%를 즉시 적립(캐시백)해준다.

10만원을 충전하면 1만원을 선 할인해 실제로 9만원이 지출되며 충전 금액을 모두 사용하면 5000원을 되돌려 받는다.

전통시장 6곳에서도 ‘설맞이 나주사랑상품권 페이백 이벤트’가 열린다.

행사 기간 5만원 이상 소비하고 영수증을 상인회 사무실 등 상품권 배부처에 제출하면 5만원 단위로 소비 금액의 10%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준다.

상품권 액수별로 5만~10만원 소비 고객은 5000원, 10만~15만원은 1만원, 15만~20만원은 1만5000원이며 최대 5만원(50만원 소비 고객)까지 지급한다.

여기에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정부·지자체 공모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에도 힘을 방침이다.

나주시는 이를 위해 ‘나주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인 소상공인 점포 개수를 15곳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소상공인 대출 용자금 이자(2~3%) 지원을 위한 예산 1억2000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 임차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내년에 1000억원 규모의 나주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 매출 상승에 기여해 연말·연초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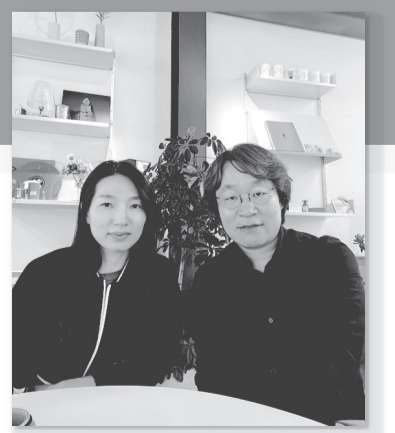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